

|  |
| --- |
| **대한응급의학회, '소방방재청에 뿔났다'** |
|  |
|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 사업추진 제동** |
|   |
| 신희섭 기자 http://fpn119.co.kr/img/skin1/icon_mail.gif |
|  |
|  |
| 소방방재청에서 추진 중인 병원 전 응급의료시스템 고도화 정책 중 중환자용 구급차에 탑재되는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이 실제적인 기반 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또 한 차례 불거질 전망이다.지난달 25일 대한응급의학회가 원격화상응급처치 시스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제도적 보완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소방방재청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응급의학 의사들의 활동과 진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밝힌 대한응급의학회의 공식 입장이다.학회는 현재 각 시도별로 진행 중인 개별 병원과 각 소방본부 간의 MOU 체결을 보류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특히, 학회 측은 원격화상 의료지도 시행을 위해서는 프로토콜의 정비, 구급대원 및 의료지도의사의 교육, 의료지도에 관련된 질 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진행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  |  |  |
| --- | --- | --- |
|

|  |
| --- |
| http://www.fpn119.co.kr/imgdata/fpn119_co_kr/201004/2010041228319436.jpg |

|  |
| --- |
| ▲  대한응급의학회 김승호 회장  © 신희섭 기자  |

 |

대한응급의학회 김승호 회장은 “그간 소방방재청의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학회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혈세 낭비와 실효성 없는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가는 것이 우려돼 이번에는 학회에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현행법상 의사 지시가 있더라도 차량에 탑승하는 구급대원들은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갖추고 있어 자격 범위 이상의 의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고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의료진과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학회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소방방재청에 체계적인 화상원격 의료지도 체계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호 회장은 “자신들 구미에만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 조직이 병원 전 구급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구급업무를 퇴보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해마다 환자이송통계 자료만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체적인 평가와 예산 운영 등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대한응급의학회의 이 같은 공식 입장에 대해 “처음 적용하는 사업이니만큼 추진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응급의학회, 국회 전문위원회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문제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